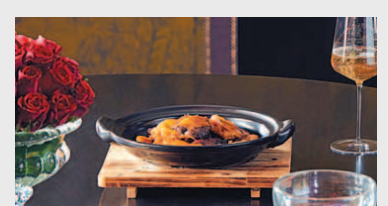


수제맥주와 중화 보양식...레스케이프 설 프로모션

조선호텔앤리조트의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는 설연휴 객실 패키지 '루나 뉴 이어 에피소드'를 22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한다. 객실 1박과 국내 수제맥주 브랜드 카브루와 협업한 한정판 에디션 '구미호 루비테일', 안주용 간식 등을 제공한다. 러쉬 에브리 클라우드 베스밤 세트도 증정한다. 레스토랑 팔레드 신에서는 보양식 메뉴 간장소스 생선찜, 팔레드 신 전가복 중 하나를 주문하면 천진고령주를 제공한다.



상장 앞둔 LG에너지솔루션, 중장기 사업 비전 및 전략 공개



LG에너지솔루션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파크원 본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사업 비전과 전략을 공개했다. LG에너지솔루션 CFO 이창실 전무, LG에너지솔루션 CEO 권영수 부회장, LG에너지솔루션 CPO 김명환 사장(왼쪽부터).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5조6000억 투자”

북미·유럽·중국 공장에 집중 투자 리사이클링 시스템 구축 등 미래 대비 희망공모가 25만7000원~30만원 12조 7500억 투자재원 마련 예상

LG에너지솔루션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파크원 본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사업 비전과 전략을 공개했다.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권영수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쌓아온 도전과 혁신 역량이 기업공개(IPO)라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번 상장을 발판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첫 걸음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총 공모주식수는 4250만 주, 주당 희망공모금액은 25만 7000원~30만 원이다.

공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LG에너지솔루션·LG화학은 최대 12조7500억 원(공모가 30만 원 기준)의 투자 재원(LG에너지솔루션 10조2000억 원, LG화학 2조5500억 원)을 마련하게 된다.

●한국·북미·유럽·중국 생산능력 확대

LG에너지솔루션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한국·북미·유럽·중국 등 국내외 생산기지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R&D) 및 신규사업 ▲품질, 안전성 강화 및 차별화된 수익성 확보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홀랜드 공장, GM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등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2024년까지 5조 6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 공장에는 내년까지 6450억 원을 투자하고,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EV용 원통형 전지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유럽 및 중국 생산공장에도 2024년까지 각각 1조4000억 원, 1조2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에도 공을 들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전지로 전고체 전지와 리튬황 전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신규사업으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배터리 데이터 활용한 진단 및 수명 예측 등 BaS(Battery as a Service) 플랫폼 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 솔루션 사업 등을 추진해 미래 경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의 품질,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등 중대 리스크 관련 제품 설계 및 공정개선 조치 ▲제품 전수-인라인 검사 시스템 구축 및 적용 ▲불량 사전 감지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이 같은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율에 도달하고, 완벽한 품질과 차별화된 수익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엔솔 주식 한 주라도 더 받으려면

LG에너지솔루션은 11~12일 이틀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8~19일 청약율 거쳐 1월 말 중 코스피에 신규 상장할 예정이다.

대표주관사는 KB증권과 모간스탠리다. 해외증권사는 개인이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KB증권을 대표주관사라고 보면 된다. 공동주관사는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다. 인수회사로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이 참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희망공모가 범위(밴드)는 주당 25만7000원에서 30만 원

이다. 예상 시가총액은 60조1380억원에서 70조2000억원.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모집 주식 수의 50%는 균등배정, 50%는 비례배정이다. 공모가가 30만 원으로 정해지면 균등배정 방식의 경우 최소투자금(청약 증거금)은 150만 원이다. 10주 이상 신청 가능하고 50%의 증거금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상 균등 배정 주식 수는 2~3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곳의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각 증권사가 배정받은 물량과 최종 경쟁률에 따라 배정되는 주식 수가 다르기 때문에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추가로 비례배정을 노릴 수 있다. 1억을 투자했을 경우 예상 배정 주식 수는 6~7주다. 이 경우 각 증권사별 청약 건수와 경쟁률을 모두 살펴 가장 유리한 증권사에 청약해야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청약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당 증권사의 계좌가 있어야 한다. 청약 당일에는 개좌 개설이 안 되는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청약 전날인 17일까지는 원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미리 개설해둬야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원로회 김용선 회장(왼쪽)과 대리수상자인 쉐라이트 인디고 이재우감독.

‘모터스포츠 발전 기여’ 정몽용 현대성우 회장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원로회 첫 공로상 수상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원로회(회장 김용선, 이하 원로회)는 공식 행사로 공로상을 마련하고 현대성우그룹 정몽용 회장을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1997년 쉐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을 창단한 이래 25년간 국내외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최근 주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유능한 선수 발굴에도 힘썼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로상을 수상한 정몽용 회장은 “우선 국내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힘찬 첫발을 내디딘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원로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영광스럽게도 원로회에서 공로상 원년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쉐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국내 모터스포츠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원성열 기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에 대한 양사 합의 10일 오전 완료하고,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냈다. 법원의 판단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오후 3시경 허기가 마무리됐다. 11월 3일 M&A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별도의 계약 없이 양사간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인수금액의 약 10%인 305억 원 중 양해각서 체결 당시 납부했던 155억 원을 제외한 150억 원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했다. 3월 1일까지 남은 잔금인 약 2743억 원을 납입하면 3048억 원의 인수대금 지급이 완료된다.

향후 쌍용차는 3월 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쌍용차의 공익채권 규모는 3900억 원이며, 총 부채규모는 1조 원 이상에 달한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숙련된 전문의 선택해야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의 시기가 중요한 질환이다. 한 번 진행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어 단계에 맞는 치료가 빠른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시기를 놓쳐 말기에 이르렀거나 약물이나 물리 치료, 비수술적 치료에도 통증과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수술을 고려하는 데 이때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다.

말기 퇴행성 관절염·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외상에 의한 관절염,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으로 통증이 발생한 경우, 운동범위가 제한되거나 무릎이 뻣뻣한 경우, 그리고 뼈끼리 맞닿을 정도로 극심한 무릎 통증을 동반하고 다리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은 손상된 뼈를 제거하고 특수 합금이나 고분자 재료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한다. 슬관절의 양쪽 관절 사이에 인공관절을 끼워 넣어 관절면이 잘 움직이도록 해준다. 환자에 따라 무릎관절이 전반적으로 손상된 경우 전체를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일부만 손상됐으면 정상 연골은 남겨두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한다.

수술 시간은 국소 마취로 진행되나 필요 시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한다. 입원 기간은 2주 정도이며 수술 후 1~2개월 후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수술은 기존의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시행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집도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맞춤형 의료기 및 수술법을 갖춘 전문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세고등병원 강진식 대표원장(정형외과)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신세계 주가 하락...정용진 ‘멸공’ 논란에 주주들 투자심리 위축

10일 6.8% ↓...시총 1674억 증발 신세계 “업계 전반적 약세” 선 그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사진)의 ‘멸공(공산주의자를 멸한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진 가운데, 10일 신세계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신세계는 전 거래일 대비 1만7000원(6.80%) 하락한

23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에는 8.20% 급락해 22만 95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시가총액은 2조 2939억 원으로, 하루만에 1674억 원이 증발했다.

계열사인 신세계인터내셔널도 전 거래일 대비 7500원(5.34%) 떨어진 13만

3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12만 25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최저가를 갱신하기도 했다.

이는 정 부회장의 멸공 논란으로 인해 중국 사업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물론 국내 불매운동까지 언급되는 등 ‘오너 리스크’로 확산되자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담긴 ‘안하무인 중국에

항의 한 번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한 것이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신세계인터넷내셔널은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고, 신세계면세점도 중국인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신세계 측은 이날 주가 하락에 대해 “K뷰티 산업의 중국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 업계 전반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며 정 부회장 발언과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정정국 기자

‘떡튀논란’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 사퇴

주가하락으로 주주들 불만 터져 카카오 “새 리더십, 논의 후 공지”

상장 한 달 만에 카카오페이가 지분을 대량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떡

튀’ 논란을 낳았던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사진)가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10일 공동대표 내정자인 류영준 카카오페이가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월까지 카카오페이가 대표직은 유지



한다. 카카오는 “새 리더십에 대한 내부 논의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추후 재공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25일 신입 공동대표로 류영준 카카오페이가 대표를 내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0일 류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회사 주식 약 44만 주를 매각한 것이 알려지면서 떡튀 논란이 불거졌다. 주식 매각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커졌고, 내부에서도 차기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